

# 충청북도에서의 定期市 變遷에 관한 기초적 연구

李 憲 昶\*

---

I. 머리말	IV. 中心地 階層構造와 都賣商業의 變遷
II. 定期市 資料의 紹介	V. 맺음말
III. 定期市の 變遷	

---

## I. 머리말

릭스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성장에 선행하는 변혁은 시장 내지 교환경제의 성장이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욱 근본적인 변혁이라고 하였다.<sup>1)</sup>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장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사에서 시장의 전개를 논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가 농촌 정기시인 場市이다. 2000년 7월 현재 충청북도의 40여 처에서 존속하는 정기시의 기원은 15세기 후반으로 소급된다. 고려시대에도 지방에 정기시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조선 건국을 전후하여 사라져서, 오늘날 정기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1470년경 場門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한 시장은 15일 간격으로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이 되면 거의가 5일마다 열렸다. 장시란 우리 나라에서 존재한 정기시이며, 18세기 중엽부터는 5일장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농촌 시장은 장시의 발달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장시는 1960년대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 John Hicks, 1969.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7.

까지 농촌의 중심적인 시장이었다.

1470년경부터 생성된 장시는 1960년대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197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장시의 위상은 18세기 중엽까지는 높아졌지만, 1867년 강화도조약 이래에는 개항장, 도시시장, 지방 상가 등의 발전에 수반하여 하락하는 추세였다.

장시의 생성·성장·쇠퇴는 한국의 시장발달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장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역사학계는 조선시대·일제시대의 장시의 변천을 다루었던 반면, 지리학계는 해방 후 장시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런데 장시는 5세기 이상에 걸쳐 존속하였고 2세기 반에 걸쳐 그 장기 변동 추이가 파악되는 만큼, 그 장기적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 시장의 장기 변동을 해명하기 위한 기본 과제에 속한다.

필자는 조선시대 충청도의 장시 변천을 살펴본 바 있고,<sup>2)</sup> 20세기 초 충청북도 장시의 상품유통과 계층구조를 고찰한 바 있는데,<sup>3)</sup> 본고에서는 충청북도에 한정하여 현재까지의 장시 변천을 추적하고자 한다. 장터에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상설시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던 20세기에는 장시보다 정기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조선말 충주와 청주에 계절적으로 열리는 市市가 짧은 기간에 존속하였는데,<sup>4)</sup> 이러한 유형의 정기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장시의 생성·소멸과 장날의 추이를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정기시의 변천을 낳은 요인이나 그 변천이 전 시장의 동향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 II. 定期市 資料의 紹介

먼저 충청북도 정기시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1470년경 전라도 무안 등지에서 15일장이 출현하였다. 『明宗實錄』元年(1546) 2月 戊申條의 논의에 의하면, 장시가 전라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경상·충청도에서 설립된 지는 오래지 않았다고 한다. 충청도에서는 16세기 전반부터 장시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李憲稔, 1994. 「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場市網과 그 變動」, 『經濟史學』 18.

3) 李憲稔, 1990. 앞의 논문, III장 舊韓末 忠淸北道의 市場構造.

4) 李憲稔, 1990.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28~9.

1770년에 간행된 『東國文獻備考』(앞으로 『동국』이라 약칭)의 '鄉市'條에는 전국 장시의 명칭과 장날이 수록되어 있다. 18세기에 장시를 통한 상품유통이 크게 성장하고 大同法 등으로 인하여 국가 需用物資의 장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에서 장세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동국』을 편찬하면서 처음으로 전국의 장시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 이전에도 邑誌나 日記類를 통하여 일부 장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순천부에서는 1618년 편찬된 『昇平誌』와 1729년 편찬된 『新增昇平誌』를 통하여 17세기초부터 장시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sup>5)</sup>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이다.

『동국』의 편찬자는 鄉市條의 마지막에서 “臣謹按 各邑小小場市 則存罷移徙間或無常 而一從今所設行處 編錄如此”라 기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장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시조에 수록된 장시의 정보가 반영하는 시점은 『동국』이 간행된 시점과 時差가 크지 않아서, 18세기 중엽 내지 그것을 약간 지난 시점으로 파악하면 잘못이 없을 것이다. 장시의 전국적 동향은 18세기 중엽부터 유효하게 파악된다. 장시만큼 장기 추세를 유효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흔치 않다.

『동국』이 편찬된 이래에도 정부의 차원에서 전국 장시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정조대에 『동국』을 수정하고 확충한 『增訂東國文獻備考』(앞으로 『증정』이라 약칭)의 鄉市條에 의하면, '補'라는 항목 하에 장시를 추가하였고, '邑誌作……'이라 하여 『동국』 이래 장시의 소멸, 장날의 변동 및 명칭의 변화를 기재하였다. 『동국』의 增訂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동국』과 『증정』을 대비해 보면, '補'라는 항목으로 추가한 장시 13기 중에 12기가 충청도와 경상도에 집중하였고, 전라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에서는 장시의 소멸도 나타나지 않았고, 황해도·평안도·함경도에서는 '邑誌作……'이라는 항목조차 없었다. “各邑小小場市 則存罷移徙間或無常”이라던 당시의 실정을 『증정』이 충실히 반영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1908년에 작성된 『增補文獻備考』에서는 『증정』에 수록된 장시의 정보를 그대로 옮겨 썼다.

英祖代부터 憲宗代에 걸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忠淸道邑誌』는 대부분 군현의 장시를 수록하고 있다.<sup>6)</sup>

官纂書가 아니면서 전국의 장시를 수록한 자료로서 1830년대에 편찬된 『林園十六志』(앞으로 『임원』이라 약칭함)와 金正浩의 3大地志인 『東輿圖志』(1834년 편찬)·『輿圖備志』

5) 韓相權,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7(서울대 국사학과), 187~8.

6) 楊普景, 「『忠淸道邑誌』 解題」, 『邑誌』 七, 亞細亞文化社, 5.

(1850년대에 편찬) 『大東地志』(1864년 탈고)를 들 수 있다. 김정호의 3大地志에 수록된 장시의 정보는 서로 거의 동일하고 『동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임원』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충청도지방에 국한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3大地志에 수록된 장시의 정보는 『동국』과 『증정』 사이의 실정을 반영하였다. 『임원』은 『忠淸道邑誌』보다도 대체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었다. 『임원』의 '八域場市'는 金華耕讀記에 의거하였음이 명시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전후 시기의 자료와 대비하여볼 때, 정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전국 장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순조대에 민간에서 장시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 간행하였던 사실이 흥미롭다.

1770년 편찬된 『동국』과 1830년대에 편찬된 『임원』은 모두 편찬된 시점과 時差가 크지 않은 시기의 장시 정보를 충실하고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대 場市網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대비를 통하여 6~7십년 동안의 장시 변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증정』, 김정호의 3대지지, 『忠淸道邑誌』 등은 『동국』과 『임원』 사이의 변화 중에서 선후를 규명하고 두 자료의 대비로서는 파악되지 않는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872년 전국적으로 제작된 地圖는 19세기 중엽 장시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지도에는 장시를 조사하지 않은 군도 있었고, 조사하더라도 장시를 망라하여 표시하지 않은 군이 많았다. 1872년의 지도에 표시된 장시는 거의가 『임원』에도 나오면서 개항 후에 존속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임원』 이후의 상황, 아마도 지도가 작성되던 무렵의 상황을 반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에는 일본인의 조사가 장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충청북도의 장시에 관한 조사는 소략한 편인데, 1906년 日本農商務省이 편찬한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京畿道·忠淸道·江原道』는 충북의 장시 31처를 수록하였다. 이 책을 위한 조사는 1905년에 이루어졌다. 度支部司稅局에서 1909년 9월 발간한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는 전국 장시의 장날, 거래액, 집산화물 및 집산지역을 기록하였다. 조사 시기는 1908년경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에는 누락된 장시가 많은데, 충청북도에서는 17처의 邑場만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에 忠淸北道觀察道에서 편찬한 『韓國忠淸北道一斑』(『일반』으로 약칭)은 충청북도 장시 51처의 풍부한 정보를 담았다. 『임원』 이후에 충북의 장시를 망라해 수록한 가장 앞선 시기의 자료는 『일반』이다. 이 자료는 장시별로 장날, 각종 상인, 모이는 사람수, 거래액 및 주요 거래품목을 기록하여 장시의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이 편찬하여 1919년에 간행한 『朝鮮地誌資料』는 전국 장시의 장날, 거래액 및 주요 상품을 수록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모두 46처의 장시가 나오는데, 토지조사사업에 수반하여 1913~1917년간에 걸쳐 조사된 것이다. 여기에는 장시 수치가 누락되었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는 해마다 전국의 장시수, 그리고 장시의 거래액과 상품 구성에 관한 통계를 수록하였는데, 1922·1923·1925·1926·1938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충청북도를 포함한 전국 장시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1922년—善生永助, 1924. 『朝鮮の市場』(朝鮮總督府), 76~112

1923년—善生永助, 1926. 『市街地の商圈』(朝鮮總督府), 453~515

1925년—相良孫四郎, 1926. 『朝鮮各都邑の經濟』(鮮滿研究協會), 312~381

1926년—善生永助, 1929. 『朝鮮の市場經濟』(朝鮮總督府), 109~172

1938년—文定昌, 1941. 『朝鮮の市場』(日本評論社), 250~254

여기서 1922년의 경우 장시명만 확인되며, 1923·1925·1926년의 경우 장시명과 장날이 확인되며, 1938년의 경우 그뿐만 아니라 거래액까지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市場規則을 제정하여 장시의 설치·폐지를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하여 철저히 감독하였으므로, 일제시대에는 정기시의 실태 파악이 정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大韓地方行政協會 편찬, 『最新國土區域總覽』(靑丘出版社, 1963)은 11장에 '市場一覽'을 수록하였는데, 이것은, 필자가 아는 한, 해방 후 가장 앞선 시기의 전국 정기시의 일람이다. 발행시기나 다른 자료의 조사시점을 참조해볼 때, 이 책의 '시장일람'은 1962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金成勳·金完培는 1975년에 전국 정기시의 장날·부지면적·거래액·출장 가축수·상인수·일반 이용자수 등을 조사하여, 그 통계를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의 附錄1로 수록하였다.

충청북도 도청은 해마다 관내 정기시의 일람표를 작성해왔다. 전경숙 교수는 도청 商政課에 문의하여 1964년 각 정기시의 명칭과 1980년 각 정기시의 부지면적·점포수를 조사한 자료를 논문에 수록하였다. 1980년의 정기시 일람표는 도청에서 구할 수 있었겠지만, 1964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군별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最新國土區域總覽』에 제시된 충북의 정기시는 84처로서 전교수가 제시한 1964년의 정기시보다 9처가 적었다. 전교수의 조사가 더욱 철저하였던 것 같다. 전자에 충주장이 빠진 것

7) 田京淑, 1983. 「韓國忠清北道地域における中心地システムに関する研究」, 『地理學評論』 56권 7호, 第2表.

은 명백한 실수이다. 양자가 장날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최신국토구역총람』이 정확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6판을 거듭하며 발행한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은 1988·1991·1995·1997년의 전국 각 정기시별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주성 교수 등의 연구를 통하여 80년대 이후 충북 정기시의 변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sup>8)</sup> 필자는 충청도청 경제통상국 경제과 상정계에 문의하여 1997년 1월과 2000년 1월에 존재한 정기시의 현황표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의하여 2000년 4월에 작성된 ‘재래시장실태조사표’를 구하였다. 이처럼 1988년 이래에는 정기시의 변천에 관한 풍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충북도청이 1972~4년간 폐지한 정기시의 일람은 『忠淸北道誌』에 나와 있다.<sup>9)</sup> 전교수와 한교수 등의 연구는 행정기관이 정기시를 폐지한 시점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충청북도가 1970·80년대에 폐지한 정기시를 알 수 있다. 그 폐지 연도를 <표 2>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의 초판에도 정기시의 폐지시기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양 계열의 자료가 파악하는 폐지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충주시 구역에서는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에 의하면 용원장은 76년에, 입장=노은장과 용당장=용포장은 78년에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경숙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에 이 세 정기시가 모두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옥천군의 안남장과 안내장은 한주성 등의 조사에 의하면 각각 1980년과 1984년에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과 도청의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전반에 휴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기관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미미한 상태로 존재하는 정기시를 폐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기시가 행정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약간 호전된 상태에서 존속하였기 때문에, 1988년 이래의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에 실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충청도청 상정계의 도움을 받아 2000년 6월에 도내 시·군청에 설문조사를 행하고,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을 위해 시·군청에 전화로 문의하고 답사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식 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정확한 실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충주댐의 건설로 1985년경에 이전된 丹陽場과 수재로 1992년경에 이전된 梅浦場은 공식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능하고 있다. 충주장은 1979년에 폐지되었지만, 1980년대 중엽 예

8)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1998.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3권 2호; 韓柱成·徐柱鎭, 1998. 「忠北 丹陽郡 定期市 出市者의 空間的 特性」, 『사회과학연구』 14권 2호.

9) 忠淸北道誌編纂委員會, 1975. 『忠淸北道誌』, 797.

성공원 주변에서 소생하였다. 충주시에 목행장이 1970년대부터 열렸는데, 공식 자료에는 빠져 있다. 보은의 창리장은 1981년부터 사실상 휴면상태에 빠졌지만, 도의 현황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에 의하면, 청원군의 부강장·옥산장·오창장·내수장은 1988년에는 폐지대상이며, 1991·1995·1997년의 통계에는 나오지 않았다. 도청의 1997년초 정기시 현황표에도 네 정기시는 나오지 않았는데, 2000년초 정기시 현황표에는 모두 나오고 있다. 필자가 청원군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들 정기시가 90년대에 걸쳐 미미한 상태로나마 존속하였으며, 폐지된 바가 없다고 한다. 서서히 소멸되어가서 미미한 상태로 존속하는 정기시를 상부기관에 보고할지 여부에는 자의적인 판단이 게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기시를 존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멸로 볼 것인가를 따지는 일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동국』의 편찬자는 鄉市條의 마지막에서 “各邑小小場市 則存罷移徙間或無常”이라 기술하였는데, 해방 후에 한계적인 정기시의 신설·폐지·부활·재소멸이 매우 활발해졌다. 그래서 정기시 변천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반면, 정기시에 대한 관의 관심은 약해져 관청의 정기시 파악력이 떨어졌다.

짧은 현지 답사로 해방 후 한계적인 소규모 정기시의 변천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의 통계에 파악되지 않은 정기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중원군 東良面 龍橋里에 정기시가 열렸다. 1970년경 이 운교장의 상권을 탈취하기 위해 충주시 牧杏里에 정기시가 개설되어 지금까지 서고 있다. 목행장의 개설로 용교장은 쇠퇴하여 1975년에는 10일간마다 한 번 열리게 되었고, 1980년경에 소멸되었다. 용교장은 김성훈·김원배의 조사에 나와 있다.

### Ⅲ. 定期市의 變遷

2절에서 살핀 자료에 의거하여 정기시의 변천을 보여주는 표를 작성하였다. <표 1>에서는 충청북도 각 정기시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1896년부터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충청북도에 속한 군의 정기시만 뽑았다. 長命場과 周岸場은 조선시대 청주군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장터가 충남에 편입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충남의 美江場과 경북의 秋風嶺場이 충북으로 편입된 반면, 충북의 鳥致院場이 충남으로 편입되었다. 충북

에 속한 적이 있는 세 정기시를 모두 표에 수록하였다.

<표 1> 정기시의 소재지와 그 변천

각 시기에서 군현의 명칭이 바뀌기도, 군의 경계도 이동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郡名을 적었다. 해방 후 청주·충주·제천이 시로 승격하면서 군명이 바뀌었다. 행정구역별로 정기시를 배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현 행정구역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표에는 짧은 기간에 존속한 많은 정기시를 포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松田行藏이 1880년대에 목격한 芝溟里場이 그 한 예이다.<sup>10)</sup> 지명리장은 남북으로는 서울과 영남을 연결하는 大路 위에, 동서로서 회인과 회덕의 통로에 있었는데, 경부철도의 개통으로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시대 이래의 자료는 정기시가 위치한 洞里名까지 기록하였지만, 『동국』과 『일반』에는 군현만, 『임원』에는 군현과 면만 나와 있다. 그렇더라도 정기시의 명칭이 마을을 표시하는 일이 많은 데다가, 예전의 장터가 구전되기도 하므로, 조선시대에만 존립한 정기시라도 대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현 위치를 표에다 기록하였다. 『일반』에 나오는 보은의 天山里場은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위치가 불확실한 정기시는 <표 1>에 표시하였다.

장시는 동일한 邑底·동리에서도 위치를 바꾸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장날이 10일 또는 5일 간격으로 번갈아 열리다가(이것을 分設이라고 한다), 합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장시가 인접한 마을로 이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청풍의 안음장은 『임원』에 의하면, 관문으로부터 10리 떨어진 북면에 위치하였는데, 1871년 편찬된 『湖西邑誌』에 의하면, 읍저로부터 서쪽으로 수백보 떨어진 八詠樓 밑으로 옮겨졌다. 松田行藏의 여행기에 의하면, 청풍의 黃江村에 3·8일장이 열렸는데,<sup>11)</sup> 『일반』에 의하면, 청풍에는 1·6일 열리는 寒泉場이 있었다. 이후 1926년까지의 자료에는 제천군 寒水面 한천리에 한천장이 열렸는데, 1938년 이래의 자료에는 인접한 황강리에 황강장이 열렸다. 이처럼

10) 松田行藏, 1888. 『朝鮮國慶尙忠清江原道旅行記事』, 183.

11) 앞의 책, 103.

위치의 변경에 따라 장시명도 변하였지만, 황강리와 한천리라는 인접한 동리간에 장시가 이동하였으므로, 표에서는 동일한 장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청안의 번탄장은 19세기 소멸되었는데, 1910년대 괴산군 증평면 증평리에 번탄장이 나타났다. 그런데 번탄리는 1914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증평면에는 속하였지만, 증평리로 편입되지는 않았다. 번탄장이 부활하면서 장소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부터 증평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번탄장과 증평장도 동일한 장으로 처리한다.

동일한 장시라도 자료마다 명칭을 달리하는 일이 많았다. 첫째, 장시의 명칭을 그것이 소재한 동리의 명칭으로 할 수도, 면의 명칭으로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제시대까지는 동리를, 해방 후에는 면을 명칭으로 하는 일이 많았다. 문의군 읍내면 신촌리에 있던 장시는 『동국』에서는 新村場으로, 『임원』에서는 邑內場으로 불렸다. 현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에 있던 장시를 『동국』·1872년지도·『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에서는 馬老場으로, 『임원』에서는 新基場으로, 『일반』에서는 世中場으로 불렸다. 세종리를 신기리라고도 불렀는지 모른다. 그밖의 사례를 일일이 소개함을 피한다.

둘째, 장시가 위치한 동리나 면의 명칭이 변할 때, 장시명이 변하기도 한다. 회인읍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은군 懷北面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회인장은 회북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연풍군 水回面 酒幕里에 있던 장은 『동국』에서는 수회장으로, 『임원』과 『일반』에서는 주막장으로 기록되었는데, 1914년 주막리가 괴산군 상모면 수회리로 편입되면서, 수회장으로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 보은의 元岩里를 비롯한 여러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元南里로 통합됨에 따라, 원암장은 1920년대부터 원남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충주 仰岩面 泉浦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성면 江泉里에 편입되는데, 1930년 전후에 천포장이 강천장으로 바뀌었다. 충주 엄정면 내창장터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美內洞에 소속되었는데, 내창장이 미내장으로 바뀐 것은 해방 후였다. 『동국』과 『임원』에서는 충주 薪石面에 3·8일의 龍安場이 나오는데, 20세기초부터는 같은 면에 1·6일의 龍院場이 나온다. 현재 薪尼面 용원리라는 행정리 속에 용안리라는 자연촌이 있다.

장시가 부활할 때, 이미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 그 명칭을 달리하게 된다. 청산의 酒城場은 주성면이라는 飛地에 위치하였는데, 1895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은군 朱城面으로 바뀌었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보은군 내북면 창리로 편입되었다. 주성장은 『일반』에 나오는 보은군 倉村里場, 해방 후에 나타난 창리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酒城面이라는 비지가 소멸되면서 그에 위치한 장시명도 변하였을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제천의 倉里가 平洞里라는 행정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18

세기말에 소멸된 창리장이 있던 마을에서 1923년경부터 부활한 장시는 平洞場이라 불렀다. 1938년의 자료에는 평동장이 白洞場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회남장이 위치한 보은 懷南面 新谷里에 풍암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원』에 나오는 楓巖場도 여기에 위치하였다. 회남장은 影堂이란 마을에 열렸기 때문에, 영당장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옥천 安南面 蓮舟里에 舟巖이란 마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나오는 주암장은 해방 후의 안남장은 같은 행정리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천장=황강장이나 번탄장=증평장처럼 장시가 인접한 마을로 이동하는 경우 장시의 명칭이 변하기도 한다. 장시가 이동하면서 장시명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주의 오근장은 1926년부터 오창장으로 기록되었다. 오근장은, 『임원』에 의하면, 北江內一面에 있었는데, 『朝鮮地誌資料』부터는 梧倉面 場垆里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강내일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北一面에 포함되었으며, 오근장은 청주시 梧東洞 내지 外南洞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임원』·『일반』의 雙橋場은 『朝鮮地誌資料』에서는 細橋場으로 나온다. 쌍교의 지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세교장과 같은 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건대, 다리의 형태가 변하면서 명칭이 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 北一面 세교리에 있던 세교장은 1920년경에 같은 면의 內秀里로 옮기면서 내수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sup>12)</sup> 이 장은 다시 1926~38년 사이에 같은 면 馬山里로 이전하였지만, 장시명이 바뀌지는 않았다. 충주의 新塘場은 『朝鮮地誌資料』에서는 武陵里에, 『市街地の商圈』에서는 新堂里에 있었다. 조선시대의 신당리는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무릉리와 신당리로 나누어졌는데, 원래 장터는 무릉리로 편입되었다가 1920년경 전후에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德山面 閑川里에 있던 한천장은 1926~38년 사이에 같은 면 龍夢里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는 덕산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일한 장시가 한자의 표기를 달리할 수도 있었다. 단양의 梅浦場을 『동국』에서는 覓浦場으로, 충주의 大召院場을 『임원』에서는 大棗院場으로, 충주의 漢川場을 『일반』에서는 汗川場으로, 진천의 廣惠院場을 『임원』에서는 光惠院場으로, 옥천의 伊院場을 『동국』과 『임원』에서는 각각 利山場과 伊原場으로, 보은의 官基場을 『동국』에서는 館基場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에서의 溫井場은 일제시대에 溫泉場으로 바뀌었다가, 1960년대에는 면의 명칭에 따라 上茅場이 되었고 70년대 이래 수안보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표 2>는 장날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장날이 分設된 경우 \*로 표시하였다. 분설되거나 합치면서 設場回數가 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후반에 청주읍의 南石橋에서는

12) 趙健相, 1961. 『淸州誌』(淸州市誌編纂委員會), 113.

2·7일장이, 서문 밖에서는 4·9일장이 교대로 열렸는데, 19세기로 전환하던 무렵에 후자가 소멸되었다.<sup>13)</sup> 충주에는 18세기 중엽 이래 성내에 2·7일장이, 서문 밖에 4·9일장이 교대로 열렸는데, 1908년 충북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이동한 직후에 충주장은 5·10일장으로 통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표 2> 장날의 변천

자료: 東國은 『東國文獻備考』; 增訂은 『增訂東國文獻備考』; 邑誌는 『忠淸道邑誌』; 林園은 『林園十六志』; 地圖는 1872년의 비변사지도; 土地는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경기도·충청도·강원도; 韓末은 『韓國忠淸北道一斑』; 地는 『朝鮮地誌資料』; 22는 『朝鮮의市場』; 23은 『市街地の商圈』; 25는 『朝鮮各都邑の經濟』; 26은 『朝鮮의市場經濟』; 38은 『朝鮮의市場』; 62는 『最新國土區域總覽』; 75는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1964·1980년은 田京淑, 「韓國忠淸北道地域における中心地システムに關する研究」, 1996·2000년은 충청북도 청 경제과 상정계의 내부 자료에 의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해방 후 실태에 관하여 일부 수정함.

- 주 : 1. 22·23·25·26·38·76·96·20은 조사된 해를 표시함. 20은 2000년도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20세기의 해당 연도를 표시.
2. 장시명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빈도수가 높은 장시명을 기재
3. 1은 1·6일을, 2는 2·7일을, 3은 3·8일을, 4는 4·9일을, 5는 5·10일을 의미함. 단 #는 10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 \*는 分設되는 장을 표시. ? 표시는 장시의 존재는 확인되거나 장날을 알 수 없는 경우.

<표 2>를 통하여 장날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기시의 변천을 시기별로 추적할 수 있다. 단양의 長林村에서 1887년 열린 壯麗한 1·6일장처럼<sup>14)</sup> 조사 시점 사이에 생성·소멸한 정기시의 정보는 <표 2>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5>는 18세기 중엽, 19세기 초, 1908년경, 1938년 및 1964년 정기시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먼저 정기시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동국』과 『임원』에는 충청북도에 속하는 군현의 장시로서 각각 54처, 53처가 수록되어 있다. 『동국』의 단계에는 청주의 南石橋場은 남문 밖에, 新場은 서문 밖

13) 앞의 논문, 113.

14) 松田行藏, 앞의 책, 92.

에 위치하여 읍장이 분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원』의 단계에는 충주읍장과 진천읍장이 분설되어 있다. 분설된 것을 별도로 헤아리지 않는다면, 장시는 18세기 중엽에는 53처, 19세기초에는 51처였다. 도의 경계를 넘나들은 芙蓉江場, 秋風嶺場 및 鳥致院場까지 모두 포함하였을 때, 장시수는 18세기 중엽 54처, 19세기 초 53처, 1908년 53처, 1922-5년간 53처, 1926년 55처였다. 충청북도의 장시밀도는 18세기 중엽부터 약 2백년간에 걸쳐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1> 18세기 중엽(『동국』 단계) 장시의 분포와 장날

<그림 2> 19세기 초반(『임원』 단계) 장시의 분포와 장날

<그림 3> 1908년경(『일반』 단계) 장시의 분포와 계층구조  
出典: 李憲稔, 1990. 앞의 논문, 161.

<그림 4> 1938년 정기시의 분포와 거래액

<그림 5> 1964년 이래 정기시의 변천

<표 3>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忠淸北道統計年報』 등을 통하여 20세기 정기시수의 변천을 살펴본 것이다. 1927년에는 사설시장이 2처, 1928~1941년간에는 1처가 있으나, 합산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는 정기시수의 변동이 연속성을 가지는데, 『충청북도통계연보』에서는 지난 30년간 정기시의 폐지는 1973·1974·1989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 3년간은 정기시가 대거 소멸된 해라기보다는 시장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정기시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해였다.

<표 3> 20세기 충청북도 정기시수의 변동

연도	장시수	연도	장시수	연도	장시수	연도	장시수	연도	장시수
1920-3	52	1936-7	61	1958	71	1973	76	1989-919	45
1924-8	54	1938-9	62	1959	75	1974-5	68	92-4	41
1929	55	1940	64	1960	78	1976-8	69	1995	43
1930-1	57	1941	65	1962-6	91	1979-84	68	1996	42
1932-4	58	1943	39	1967-8	92	1985	67	1997-8	46
1935	60	50년대	52	1969-72	94	1986	64	1999	44
						1987-8	68		

자료: 1920~41년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43년·1950년대는 金成勳,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196; 1958~60년간은 田京淑, 『韓國忠淸北道地域における生活圏および定期市の變容に關する研究』, 제2표; 1962~99년간은 『忠淸北道統計年報』.

1914년 市場規則이 제정된 이래 정기시의 개설과 폐지는 도지사의 허가 사항이었는데, 근래에는 시·군이 관할한다. 현재 보은군의 시장 조례에 의하면, 정기시를 폐쇄하고자 한다면 1개월간 공고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한다. 따라서 정기시가 기능을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폐지될 수 있으며, 소멸된 지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기시가 행정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자연사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다. 자연발생적인 정기시의 생성 시점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힘들고,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정기시의 소멸 시점을 엄밀히 판정하는 일은 더더욱 곤란한 일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정기시의 비중이 낮고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가 場稅와 같은 것을 거두지 않게 됨에 따라, 정기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기시에 대한 관청의 파악력이 높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표 3>을 통하여 정기시의 변천을 개관해보자. 충청북도의 정기시수는 1924년부터 늘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정기시수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말까지 그다지 변하지 않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빠르게 늘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증가 추세가 늦게 나타났다. 1924-1941년간에 정기시의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해방 전에는 1941년의 65처가 정점에 도달한 수치로 보인다. 전시통제가 본격화 되는 1942년 조선총독부는 충남에 대하여 정기시 10처의 폐지를 명령하고 11처의 폐지를 권하였다.<sup>15)</sup> 충북에서는 폐지의 명령 내지 권고를 받은 정기시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

15) 李憲利, 1990. 「홍성지방의 시장발달사」, 『洪城郡誌』(增補版), 1514(앞으로 이 논문을 인용할 경

만, 이러한 정책과 전시통제에 따른 거래의 위축은 정기시수를 급감시켰음이 틀림없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초까지 정기시수는 배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정기시가 가장 급속히 증가한 시기였다. 정기시는 1960년대에 90여 처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1970·80년대에 급감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정기시수는 1973~4년간에 26처, 1989년에 23처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에 소멸되고 있거나 막 소멸된 정기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73~4년간 26처나 되는 정기시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건대, 1960년대 후반부터 정기시수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1975년의 센서스조사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개설한 정기시 74처 중에 休市 상태에 있는 것이 3처, 단독 가축시장이 1처여서 정기시로서 기능하는 것은 70처였다.<sup>16)</sup> 1973~4년간의 정기시 정리가 상당히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전반에 정기시가 10처 이상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에 정기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정기시는 53처에 불과하였다 하니,<sup>17)</sup> 70년대 후반에도 정기시의 소멸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이르기까지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한 십여 처의 정기시가 통계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 80년대보다 70년대에 정기시 감소가 더욱 급격하였던 것 같다.

『忠淸北道統計年報』에 의하면, 1990년대에는 정기시의 감소 추세가 멈추었다. 1995·1997년에는 정기시수가 오히려 늘었다. 『충청북도통계연보』의 1996·1999년 정기시 통계의 근거 자료인 정기시장 현황에 관한 도청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였다. 1997년 1월에 충북의 정기시는 42처 중에 5처가 휴면 중이었는데, 『충청북도통계연보』에 의하면 1996년 말 정기시수는 42처로 집계되었다. 필자는 설문조사와 현지 문의를 통하여 도청의 자료와 부분적으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양장은 1985년에, 매포장은 1992년경에 위치를 이전하여 존속해왔다. 충주시에서는 목행장이 1970년대부터 열렸고, 1980년대 중반 예성공원 주변에 정기시가 출현하였다. 청원군의 부강장·옥산장·오창장·내수장은 1997년 초 정기시 현황표에 나오지 않았지만, 미미한 상태로나마 존속하였다 한다. 휴면 상태로 보고된 청원군의 문의장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휴면 상태로 보고된 정기시 5처와 현황표에 나오지 않는 청원군의 정기시 4처를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아 정기시 통계에 제외할 것인가. 당시 각 정기시의 상거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우 필자의 학위논문과 구별하기 위해 책명도 아울러 적기로 한다).

16) 金成勳, 앞의 책, 198.

17) 田京淑, 1982. 「韓國忠淸北道地域における生活圏および定期市の變容に關する研究」 『地理學評論』 55권 5호, 302.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없다. 실태를 알더라도 서서히 소멸해가는 정기시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사실상 시장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기란 곤란한 문제이다.

2000년초의 정기시 현황표에 의하면, 정기시가 44처여서 3년전보다 2처 증가하였다. 2000년초의 현황표에는 3년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1981년부터 시장기능을 상실한 보은의 창리장은 수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단양장·매포장·충주장·목계장은 빠져 있다. 1997년초에 휴면 중이던 옥천의 안남장·안내장과 진천의 이월장은 사라졌다. 2000년초의 현황표에도 등장한 청원의 문의장은 2000년 7월 현재에도 미미한 상태로 기능하고 있다. 청원군의 부강장·옥산장·오창장·내수장은 1998년경부터 상인들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군청에 포착되어 2000년초의 도청 자료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내수장은 1979년경에 소멸되었다가 1997년에 부활하였다 한다.<sup>18)</sup> 정기시의 부활은 음성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1973년에 폐지된 생극장이 2000년초 정기시 현황표에 개설 연도를 1995년으로 하여 등장하였다. 대소장은 1983년말에서 1984년초 사이에 소멸하여 1993년에 부활하였는데,<sup>19)</sup> 1997년초 정기시장 현황표부터 나와 있다.

<표 4>를 통하여 정기시 변동의 양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표 4>는 <표 2>를 토대로 18세기 후반 이래의 시기를 몇 구간으로 나누어 정기시 변천을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일시 소멸은 구간 내에서 소멸하다가 부활한 것이며, 부활은 구간을 걸쳐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것이다. 일시 생성은 구간 내에서 생성하였다가 소멸한 것이다. 영동의 양산장은 1938년에 일시 休市하여 존속으로 간주하였다. 충주의 내창장·목계장·용원장의 장날은 1910년대에 일시적으로 변하였다가 곧 원래로 복귀하였으며, 충주의 신당장은 1910년대에 장날이 변하였다가 1920년대에 소멸되었는데, 이러한 구간 내의 장날 변동도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1965년 이래 정기시의 변동은 <그림 5>에 표시하였다.

#### <표 4> 장시의 유형별 변천

18)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앞의 논문, 233, 표 3 참조.

19) 앞의 논문, 235.

	18C 후반—19C초	19세기초—1908년	1908년—1938년	1938년—1964년
존속	영춘, 단양, 매포, 제천, 청풍, 수산, 충주, 신당, 내창, 대소원, 용원, 무극, 음성, 진천, 한천, 광혜원, 괴산, 연풍, 수회, 번탄, 청천, 청주, 미원, 쌍교, 오창, 조치원, 문의, 두산, 회인, 보은, 원남, 관기, 신기, 옥천, 이원, 주암, 양산, 영동, 용산, 황간, 둔덕, 지천, 추풍령	영춘, 단양, 매포, 제천, 청풍, 수산, 충주, 신당, 내창, 대소원, 용원, 무극, 음성, 진천, 한천, 광혜원, 괴산, 연풍, 수회, 청안, 청천, 청주, 미원, 쌍교, 오창, 조치원, 부강, 문의, 두산, 회인, 보은, 원남, 관기, 신기, 청산, 옥천, 이원, 양산, 영동, 용산, 심천, 황간, 둔덕, 추풍령	영춘, 단양, 매포, 제천, 청풍, 수산, 한천, 충주, 내창, 목계, 대소원, 용원, 천포, 한천, 무극, 음성, 진천, 한천, 광혜원, 괴산, 연풍, 청안, 청천, 청주, 미원, 오창, 조치원, 부강, 문의, 회인, 보은, 원남, 관기, 청산, 옥천, 이원, 양산, 영동, 용산, 심천, 황간, 추풍령	영춘, 임현, 단양, 매포, 장림, 사평, 제천, 청풍, 수산, 황강, 덕산, 평동, 충주, 내창, 대소원, 용원, 용당, 입장, 덕은, 한천, 무극, 음성, 왕장, 보천, 정천, 덕정, 진천, 한천, 광혜원, 괴산, 목도, 연풍, 수안보, 청안, 증평, 청천, 청주, 미원, 내수, 오창, 조치원, 부강, 옥산, 문의, 회인, 회남, 보은, 원남, 관기, 산외, 청산, 옥천, 이원, 양산, 영동, 용산, 심천, 황간, 추풍령, 입산
이동		황강→한천,	寒泉→黃江, 閑川→龍夢, 쌍교→내수→마산	
분설	진천		괴산	
통합	청주	충주, 진천		괴산
장날 변경	수산, 청천, 회인	단양, 청풍, 수산, 충주, 대소원, 용원, 漢川, 진천, 수회, 회인, 영동	매포, 사평, 천포, 왕장, 보천, 진천, 閑川, 수회, 부강, 원남, 관기, 청산, 이원	사평, 청풍, 황강, 평동, 덕정, 진천, 옥천, 양산
생성	안음, 漢川, 청안, 송면, 부강, 풍암, 청산, 서평리, 심천, 용화	한천, 목계, 천포, 석현, 목도, 수안보, 천산리	장림, 사평, 덕산, 용당, 입장, 덕은, 왕장, 보천, 정천, 덕정, 옥산, 산외, 입산	별방, 송학, 주덕, 산척, 조동, 대소, 생극, 이월, 초평, 부흥, 덕평, 삼송, 감물, 태성, 칠성, 사리, 방곡, 도안, 소수, 미호, 남일, 척산, 현도, 외속리, 내속리, 안내, 청성, 동이, 서화, 매곡, 학산
부활		주성=창촌리	임현, 창리=평동, 수안보, 번탄=증평, 풍암=회남	석현, 용화, 창(촌)리, 주암=안남
일시 생성			광전, 병암	
일시 소멸		漢川	목도, 수안보	
소멸	임현, 창리, 가흥, 남창, 우목, 장양, 진암, 장명, 주안, 주성, 증약	안음, 번탄, 송면, 풍암, 주암, 용화, 서평리, 지천	신당, 석현, 수회, 두산, 신기, 천산리, 창촌리, 둔덕	목계, 천포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까지 정기시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기시의 생성·소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중엽에 있던 54처의 장시 중에 19세기초까지 2할에 해당하는 11처가 소멸되고 10처가 생성하였으며, 장날의 변동은 4건에 불과하였다. 이 구간에 생성한 한천·청안·청산·심천·용화는 육로 교통의 요지이며, 부강은 금강 수운의 종착점이었다. 이 구간에 소멸한 가흥·장명·증약·장양은 驛이었고, 남창·주성·창리에는 倉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 주도에 의한 상품유통이 위축되고 민간의 상품유통이 활성화되었음을 드러내지 않을까.

19세기초부터 1908년까지는 8처에 장시가 소멸하고 그만큼 장시가 생성·부활하였다. 생성·소멸하는 장시는 줄었지만, 장날의 변동은 급격해졌다. 1872년 지도,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등을 활용하면, 이 구간에는 開港과 철도 개통에 따른 장시의 변동을 엿볼 수 있다. 1876년 개항 전에는 안음장이 장날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다 마침내 소멸한 것, 진천의 石岬場이 생성한 것, 그리고 충주의 漢川場이 일시 소멸한 것이 확인된다. 석현장은 1905년경에 “鹽店으로서 단지 봄(3~6월)과 가을(7~9월)에 開市될 따름이다”<sup>20)</sup>고 할 정도로 평상적인 거래로서는 정기시를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1910년대에 소멸되고 말았다.

개항 후에 장시 변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通路上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인천이 개항된 이래 한강이 국제무역을 위한 통로로서 기능함에 따라 泉浦·牧溪·寒泉이란 浦口에 러일전쟁 이전에 장시가 창설되었음이 주목된다. 이 중 목계는 元山과 江景에 비견될 만큼 번창한 浦口로 성장하였다.<sup>21)</sup>

<표 5>는 정기시 거래액의 추이를 보여준다. 1908년경 충청북도의 장시 51기를 검토하여보면, 每市去來額 3백圓 이상의 장시 24처 중에 21처가 『동국』 단계부터, 2처가 『임원』 단계부터 존속하여왔으며 牧溪場만이 개항 후에 생성되었다. 『동국』 단계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계적 영역의 장시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지만, 규모가 큰 장들은 장기적으로 존속하였으며, 場市網의 기본 구조는 안정적으로 존속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이미 효율적인 장시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시망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따른 상품유통의 성장과 변동이라는 충격을 커다란 재편이 없이 흡수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20)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京畿道·忠清道·江原道, 674.

21) 李憲稔, 1990. 앞의 논문, 204.

<표 5> 정기시 규모의 변천

1908~1938년간에는 정기시가 8기나 소멸하였으나, 1938~1964년간에는 해방이란 격변을 거치면서도 2기밖에 소멸하지 않았다. 해방 후 정기시밀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기시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목계와 천포관 두 포구에 정기시가 소멸하였다. 개항 이후 성장하던 남한강 포구의 상업은 이 무렵에 황혼을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기시가 예전의 여러 장터에 부활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러한 정기시 변천을 낳은 원인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까지 충북의 장시밀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수요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이래 농촌의 수요밀도는 완만하나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강화도조약 이래 외국무역의 확대, 철도망의 성립, 인구증가 등은 수요밀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23년까지 장시밀도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의 장시망이 완만히 증가하는 수요를 흡수할 정도로 탄력적이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싶다. 1924년 이래 장시밀도의 증가는 이전에 증가한 수요밀도의 압력에도 힘입었을 것이다. 일제시대까지 장시밀도가 인구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밝혀져 있는데,<sup>22)</sup> 일제시대 1% 이상에 달한 인구 증가율이 장시 확산을 위한 수요 기반을 제공하였다. 30년대에 농촌경제 형편이 호전되는 추세였는데, 이것이 장시의 빠른 증가를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정기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50년대 중엽에는 1941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1962년 91처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낳은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통제경제의 자유경제로의 전환은 정기시수가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미군정기에도 통제배급제도가 존속하였지만 일제시대보다 완화된 것이었고, 정부 수립 직후에 그것이 폐지되었다. 둘째, 해방 후 정기시에 대한 관청의 감독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시 개설을 위한 농민의 요청에 관청의 태도가 더욱 우호적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1면 1시장 설립운동이 아마도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sup>23)</sup> 이러

22) 木村光彦, 1989. 「定期市」,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安秉直·李大根·中村哲·梶村秀樹 編, 比峰.  
23)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앞의 논문, 230에서는 1950년대 말 1면 1시장 설립에 의하여 보은군 탄부면에 정기시가 설립된 사실을 밝혔다.

한 지역 주민의 정기시 개설운동과 관청의 우호적 태도의 결합이 정기시 급증을 낳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1938~1964년간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 정기시 34처 가운데 32처가 새로운 면에 개설되었다. 짧은 기간에 존속하여 파악되지 못한 정기시가 상당수였을 터이다. 넷째, 6·25전쟁으로 생활기반을 위협받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교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상업인구가 급증하였는데,<sup>24)</sup> 상업인구의 증가가 정기시의 增設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1953~1961년간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3.4%이고 1955~1964년간 충북의 인구수는 119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고도성장이 개시되는 1962년부터 정점에 달한 정기시수는 약 십년 동안 별 변동이 없다가, 농가경제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도농간 격차가 가장 줄어들은 1970년대 전반부터 격감하였다. 1960년대 이래에는 경제발전예 따른 시장의 성장을 정기시라는 전통적 시장 형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까지는 농촌 주민이 생산물을 판매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에 주로 정기시에 의존하였는데, 60년대부터 정기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졌다. 유통시설과 교통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낳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19세기까지 충북에는 장시와 포구 밖에 유통기구라 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20세기에 는 점포, 상설시장, 슈퍼, 백화점, 할인점 등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제시대에 상점수가 빠르게 늘어 1938년경에는 농촌 장시에도 평균 50개 정도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상점의 경영은 장날의 거래에 주로 의존하였다. 일반 도읍에는朝夕으로 열리는 저자가 확산되었지만,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하나의 場屋에서 판매하는 公設市場이 충북에는 출현하지 않았다.<sup>25)</sup>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에 충북의 조선인은 장시의 거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해방 후에 상점과 상설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1960년에 도매상점이 457개, 소매상점이 5,592개이고, 1966년에 상설시장이 8처였다. 1960년대 이래 상점과 상설시장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농협연쇄점과 슈퍼마켓의 확산이 주목할 만하다. 1970년부터 농협연쇄점이 전국 도처에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1980년 1,446개, 1985년 1,783개에 달하였다.<sup>26)</sup> 1980·90년대에 시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에 12개소이던 상설시장은 1992년에 26개소로 증가하였다. 70년대 전반부터 출현한 슈퍼마켓은 1980년

24) 서울특별시, 1983. 『서울육백년사』 5권, 396쪽.

25) 文定昌, 1941. 『朝鮮의市場』(東京:日本評論社), 105-108.

26) 趙炳贊, 1992. 『韓國市場發達史』(동아대학교출판부), 399.

대에 널리 확산되어 1982년에 62개, 1988년에 163개에 달하였다. 오늘날 농촌을 둘러보면 조그만 가게도 슈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종전에는 슈퍼마켓이라고 표방해야 사람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소매상업에 큰 충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백화점이 출현하고 1980년대에 연쇄화사업이 진전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청주시·충주시에 대형 할인점이, 기타 도읍에는 소형 할인점이 활발히 들어섰다.

상점, 상설시장 및 농협연쇄점의 확산이 반드시 정기시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 다수가 장터나 그 부근에 위치하였고, 이러한 설비를 갖춘 정기시는 장날에 더욱 많은 고객을 불러모을 수 있다.<sup>27)</sup> 농민은 장을 보면서 장터에 인접한 농협연쇄점에 둘러 물건을 구입하였다. 또한 농민은 장을 보러 나와 슈퍼마켓을 찾았다. 그래서 농협연쇄점과 슈퍼마켓이 정기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한다.

그런데 상설화된 유통시설은 장날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정기시의 위상을 낮추게 된다. 상설화된 근대적인 유통시설은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집중하였다. 1960년 충북의 도매상점 457개, 소매상점 5,592개 중 청주시와 충주시에 위치한 것은 각각 51%, 35%를 차지했다. 1966년 충북의 상설시장 8처는 모두 청주시·충주시·제천시에 위치하였다. 1983년 충북의 슈퍼마켓 73개 중 청주시·충주시·제천시에 위치한 것이 48%를 차지하였다. 1993년 연쇄화사업자 6개는 모두 청주시·제천시에 위치하였다. 1999년도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청주시에 4개, 충주시에 1개 있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달리 말해 도시화가 진전된 곳일수록 상설화된 유통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정기시의 위상이 일찍부터 약화되었다. 그래서 청주시에는 1972년에, 제천시에서는 1974년에, 충주시에서는 1979년에 정기시가 폐지되었다. 상설시장의 성장이 정기시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는데, 1980년대 초 그것은 청주시에 7처, 충주시에 3처, 제천시에 2처 있었다.<sup>28)</sup> 그리고 이들 도시의 장터에는 상점이 즐비하여 노점이 없더라도 매매에 지장이 없었다.

청주장·제천장·충주장은 1970년대 이전에 사실상 상설화되었지만, 행정적으로 정기시가 폐지된 후에도 정기시의 요소를 상실하지 않았다. 청주장이 1972년 폐지된 후에도 한동안 장날이면 장꾼으로 붐벼 盛市를 이루었고 평일이면 거래가 한산하였다.<sup>29)</sup> 김성훈·김완배의 조사에 의하면, 1974년에 폐지된 제천장과 1979년에 폐지될 충주장이 1975년에도 다수의 행상이 방문하는 번창한 정기시였다. 충주장이 폐지될 무렵에 장날에는

27) 金成勳, 앞의 책, 227.

28) 田京淑, 1983. 앞의 논문, 제2표, 487 참조.

29) 淸州市誌編纂委員會, 1976. 『淸州市誌』, 293 및 542.

盛市를 이루어 장터에 노점이 즐비하게 들어섰는데, 그 때문에 장터가 혼잡하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다 하여 거리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행상은 鳳方洞으로 옮겨 오일장을 계속 열었는데, 이것이 상설화되어 무학시장이 되었다. 이들 세 도시에 정기시는 폐지된 후에 오래 존속하였지만, 점차 쇠퇴하는 추세였다.

이들 대도시에 정기시가 폐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 존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시의 강고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실로서 충주시 북쪽 외곽에서의 牧杏場의 존속을 들 수 있다. 목행장은 목행교 건너 東良面 雲橋里에 있는 정기시의 상권을 탈취하기 위해 1970년경 개설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정기시는 시가지의 중심 상가와 상당히 떨어진 목행리와 龍灘里의 주민, 인접한 충주비료공장(최근에는 새한미디어) 사택의 주민 및 목행교 건너 동량면과 金可面의 주민을 고객으로 삼았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장이 잘 섰으나, 충주비료공장의 폐쇄로 타격을 받고 최근 경제위기로 더욱 침체하여 2·7·5·10일에 열리던 장날을 2·7일로 반감하였다.

상설화된 유통시설이 점차 도읍이 아닌 곳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농가는 점차 그것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갔다. 1970년대 초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가 의류와 농기구를 구입할 때 정기시에 각각 50%, 56%를, 지방 상점에 각각 16%, 18%를, 농협에 각각 26%, 21%를 의존하였다.<sup>30)</sup> 농협연쇄점은 70년대 후반 면소재지에 널리 확산되었는데, 농민은 농협연쇄점으로부터 생활필수품, 채소류, 주곡, 농약·비료, 농기계,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게 되었다.<sup>31)</sup>

20세기에 일어난 교통의 혁명적인 변화는 시장의 변혁을 초래하고 정기시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일제시대에는 철도 수송의 확대가 교통 발달을 주도하였고, 자동차를 이용한 수송이 개시, 확대되었다. 해방 후에는 자동차에 의존한 도로 수송의 발전이 교통 발전을 주도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고속도로 시대가 개막되고 버스가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도로 교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농촌에도 자가용이 널리 보급되었다.

농민보다 상인이 발전된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기 마련이다. 일제시대에 농촌에서 수집한 물자를 개항장의 정미소, 대도회의 도매상인, 각 공장에 공급하는 買集商이 활동하였는데,<sup>32)</sup> 이들 다수가 철도, 자동차 등 근대적 교통수단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해방 후

30) 이재하·홍순완, 1992. 『한국의 場市』, 민음사, 153, 표 3-32.

31)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앞의 논문, 247-248.

32) 文定昌, 앞의 책, 112쪽.

도로교통의 발전은 이러한 상인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950년대에는 장꾼이 비교적 규모가 큰 정기시를 운행하는 場車를 활발히 이용하였고, 1960년대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상인이 늘어났다.<sup>33)</sup> 라디오·TV 등 매스컴, 그리고 전화 등 통신의 발전도 상인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발전된 교통·통신수단에 의존하여 상인은 정기시를 경유하지 않고 농가 생산물을 수집하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1970년대 초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가 정기시를 경유하지 않고 산지 수집상에 쌀·보리·고추를 판매하는 비중은 각각 24%, 14%, 21%였다.<sup>34)</sup>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충북의 특산물을 서울로 공급하는 산지 수집상과 전국의 공산물을 충북으로 배급하는 도매상인의 활동을 크게 지원함으로써, 정기시의 위상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1950년대 이래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 수송의 확대와 도매상점의 증가는 농가의 생산물 판매방식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1966년 충북 도매상점 440개 중 62%가 청주시와 충주시에 있었고, 도읍이 아닌 지역에는 도매상점이 대개 확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1960년대에 부유한 농민은 도읍의 시장으로 와서 생산물을 판매하고 일용품을 구입해가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전반까지는 농민이 버스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장을 보는 관행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정기시는 농민의 중심적인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1975년의 센서스조사에 의하면, 충북 정기시 68처 중에 커지는 장이 42.6%, 위축되는 장이 17.6%, 별 변동이 없는 장이 39.7%였다.<sup>35)</sup>

그렇다면 1970년대 전반에 충북 정기시수의 대폭 감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1면 1시장 설립운동으로 확고한 수요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설립된 많은 정기시가 소멸되었거나 미미한 상태로 존속하였을 터인데, 이러한 정기시를 정리한 것이 그 주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1938-1964년간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 정기시 34처 가운데 32처가 새로운 면에 개설되었는데, 그중 1975년 이전에 소멸된 것은 21처에 달하였다. 일제시대부터 1964년까지 존속한 정기시 60처 중에 1980년 이전에 소멸된 것은 10처에 불과했다.<sup>36)</sup>

충북도청은 유통구조 근대화의 시책으로서 1972-4년간 26처의 정기시를 폐지하였다.<sup>37)</sup>

33) 金完培, 1977. 「農村 市場의 構造 變動에 關한 研究—李朝 以後 安城圈 市場을 中心으로」, 서울대 농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82~83.

34) 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153, 표 3-32.

35) 金成勳, 앞의 책, 224.

36) 田京淑, 1983. 앞의 논문, 제2표 참조.

대도시에서 번창하던 정기시인 청주장과 제천장을 폐지하였고, 농촌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정기시를 상당수 폐지하였을 것이다. 정부는 1960년대까지는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기시에 호의적이었다가, 1970년대부터는 유통근대화를 위해 정기시를 상설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1970년대 전반 정기시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농가경제력의 향상과 교통의 발전이 결합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의 마케팅 방식을 변혁시키는 가운데 농촌 지역의 정기시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에 힘입어 농촌 마을까지 차도가 확장됨에 따라, 면소재지까지 다니던 버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 마을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농촌 주민은 버스를 이용하여 상품이 풍부하고 가격조건이 유리한 도읍의 정기시에 출입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버스 노선이 확장되고 버스 운행이 빈번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버스 운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짐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여 장을 보는 관행이 널리 보급되었다. 농민은 다량 구매할 경우 버스를 타고 도읍의 장을 보고, 소량을 구매할 경우 걸어서 인접한 소규모 정기시를 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읍에 위치하지 않은 저차중심지인 정기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정기시수의 격감은 버스를 이용하여 장을 보는 관행의 보급에 주로 기인하였다.<sup>37)</sup> 이 시기에 농산물 판매의 정기시 의존률이 크게 낮아지고 산지 수집상과 대도시 도매시장에 대한 판매비율은 크게 높아졌다.<sup>38)</sup>

1980년대에 정기시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부활하거나 신설된 정기시 2개를 확인하였다. 단양의 長林場은 단양읍의 상권에 흡수되어 1972년에 폐지되었다가 단양읍의 수물·이전을 계기로 1983년경 부활하였다. 풍기·영주·단양 관내 상인에 홍보하여 처음에는 잘 되었으나 약 14개월만에 상인이 반으로 줄고, 이후 계속 위축되었다. 지금 반경 12km 이내의 주민이 소량의 구매를 위해서만 장림장을 찾는 실정이라고 한다. 1979년 충인동의 정기시가 폐지된 후에 행상은 鳳方洞으로 옮겨 장날을 열었지만, 정기시는 쇠퇴하는 추세였다. 그런 상황에서 행상의 일부는 중앙파출소 앞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거래를 행하였다. 그런데 중앙파출소 앞의 노점상 거래에 따른 혼잡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1985년경 校峴洞 예성공원 앞으로 이전되었다. 자가 생산물을 팔러 온 농민이 버스에 내

37) 忠淸北道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797쪽.

38) 필자는 1990년 홍성군의 답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李憲稔, 1990. 앞의 논문, 『洪城郡誌』, 1528~1529), 이번 답사를 통하여 충북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39) 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표 3-33 및 표 4-20 참조.

리면, 대기하던 상인이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買集하였는데, 여기서 출발하여 버스 정류장이 있는 예성공원 주위에 5·10일장이 열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원주 등 강원도의 행상이 활발히 진출하여 상권을 장악하였다 한다. 예성공원의 장은 장림장과는 달리 갈수록 번창하였다.

20세기 전반까지는 정기시밀도와 인구밀도가 밀접한 관련을 가졌는데, 그 후반에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전후에 빠르게 증가하던 충북의 인구는 1966년 15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래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에 140만 이하로 떨어졌다가 1990년대에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1998년에는 149만 명이였다. 1960년 후반 이래 인구 감소는 서울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기인하였다. 1990년대의 인구 증가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자가용의 보급에 따른 교통 혁신으로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거리가 단축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충북 인구가 정점에 달한 1966년은 정기시수가 정점에 달한 시점과 가까웠으며, 인구가 감소한 시기와 정기시수가 감소한 시기는 대체로 일치하며, 인구가 증가하는 1990년대에는 정기시수도 약간 증가하였다. 인구 변동과 정기시 변동의 이러한 유사성은 양자의 관련성을 보여주지만, 그 상관성은 20세기 전반 이전과는 달리 약하였다. 상설화된 유통설비의 확장, 도시화의 진전 및 교통의 발달이 결합하여 그 상관성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인구밀도는 수요밀도를 통하여 정기시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1966년 이래 인구수가 감소하였지만, 1인당 소득의 증가와 상품경제화의 진전으로 1인당 구매력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밀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정기시밀도가 격감한 것은 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정기시의 비중이 격감하였기 때문이다.

정기시 위상의 저하는 도시화가 진전된 곳일수록 먼저 나타난다. 1956년 각각 7.5만, 5.2만이던 청주시와 충주시의 인구는 1998년에 55.9만, 21.9만으로 급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도시에 상설화된 유통시설이 발달하고, 주민의 경제생활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고 구매력이 높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에서 정기시는 위상이 저하되어 1970년대에 폐지되었던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을 감안한다면, 농촌 인구의 감소는 현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농촌에서도 1인당 구매력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농촌 지역의 수요밀도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정기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그 위축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버스 등을 이용하여 都郡의 장을 보는 관행이 보급되면서 농촌의 정기시는 급격히 위축되고 도읍의 정기시는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충주 동쪽 지방에 정기시밀도가 낮은 편인 것은 충주댐의 건설로 인구밀도가 낮은 데에 기인한다.

1990년대에 도시에서는 대형 할인점이, 농촌에서는 소형 할인점이 출현하여 그 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면소재지에서도 새로 생긴 비교적 규모가 큰 소매점은 마트, 공판장 등의 이름을 붙이고 할인점을 표방하고 있다. 슈퍼를 표방하는 상점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으며, 기존 슈퍼가 점포를 확장하여 상호를 마트로 바꾸기도 한다. 음성군 삼성장터의 삼성가축병원의 수의사는 필자에게 슈퍼마켓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하였다. 농협연쇄점은 1990년대 후반에 차례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하나로마트로 명칭을 바꾸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마트, 공판장 등의 이름을 달고 할인점을 표방하는 점포가 특히 번창하고 있다. 종전에 농민은 장을 보면서 슈퍼마켓을 찾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장에 들르지 않고 마트로 바로 가서 사기 때문에 정기시에 타격을 주고 있다. 2000년 4월에 작성된 '재래시장실태조사표'는 90년대에 개설된 할인점이 전반적으로 정기시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이동하면서 소매하는 행상이 출현하여 최근 경제위기 이래 급증하였다. 이동 소매점의 급증은 상점뿐만 아니라 정기시의 거래를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1990년대에 자가용이 일반 농가에도 널리 보급되면서 자가용으로 시장을 보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현재 단양군 영춘면과 같은 산간 지방에서도 농가의 과반이 화물차, 승용차 등의 자가용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할인점에는 멀리 떨어진 주민까지 와서 자가용으로 한꺼번에 다량의 물자를 사가고, 셔틀 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왕래를 돕고 있다. 할인점의 번창을 낳은 한 요인은 자가용의 보급이며, 주차시설은 할인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제 농촌에서도 자가용으로 청주 등 대도시로 구매하는 길이 열렸으므로, 대도시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더욱 번창해지는 반면, 정기시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충북의 행정관청에서는 1990년대에도 정기시가 위축되는 추세라고 말하였고, 필자도 답사를 통해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1990년대에는 정기시가 줄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버스 대신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장을 보는 관행은 소규모의 농촌 정기시보다 읍소재지의 정기시에 더 타격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버스보다 기동력이 높고 편리한 자가용으로 읍장을 보기보다는 대도시의 대형 소매점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읍장은 타격을 입더라도 존속할 여력을 가진다. 둘째, 정기시를 순회하는 행상이 가격경쟁력에서 대형 할인점보다는 열세였지만, 소형 상점보다는 불리하지 않았다. 이것은 행상과 공존하는 도읍 장터의 여러 상점주인이 지적하였다. 행상은 점포유지비가 들지 않는 데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돌며 판매하는 이점을 가진다. 그래서 장

터에 점포를 가지면서 장날을 순회하는 상인이 많다. 그리고 행상이 화물차를 마련하여 서울, 청주 등의 도매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행상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향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촌 정기시의 끈질긴 존속은 장보는 습관을 배제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오늘날 농촌 정기시는 40대 이상의 주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출입하던 정기시의 친밀감, 이웃 주민과 自家 생산물을 팔러오는 농민을 만나는 즐거움 등이 장년 세대의 발길을 정기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주의 예성공원·충인동장과 음성의 무극장과 같은 큰 장에는 젊은 주부도 최근 점차 많이 출입하게 되었다. 싼 물건이 많은 데다가 많은 인파와 어우러져 장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강한 대형 소매점의 상권에 포섭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기시가 끈질기게 존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충주 용원장에서 만난 채소 행상은 대형 할인점이 아니라면 가격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넷째, 1990년대 인구 증가는 정기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음성에서는 1988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 이래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인구 증가가 현저하였다. 음성 관내의 정기시와 진천의 광혜원장은 공단 인구조로 다소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증가하는 공장노동자 등 비농업인구는 면소재지의 소규모 장을 잘 보지 않았으므로, 인구 증가가 정기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곤란하다.

1990년대에 충북 정기시가 줄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정기시의 부활·신설이다. 특히 충주 예성공원장의 성공은 주변 지역에서 정기시의 개설운동을 낳았다. 예성공원의 주변에는 1998년경 봄·가을의 성수기의 장날이면 노점이 4백여 명이 출시하였으며, 2000년 봄에는 6백명 정도 출시하고 구매자가 4~5천명 다녀간다고 한다. 노점상 중에 전업 상인이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농민이며, 식품잡화·어물·의류·농산물을 많이 취급한다고 한다. 예성공원의 정기시가 이처럼 번창하자, 최근에는 성남장, 평택장과 더불어 전국 3대장에 속한다고 일컫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일반 정기시가 위축되는 가운데 충주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정기시는 왜 더욱 번창해질까. 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상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시장이나 산지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매상점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자가 생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정기시가 이러한 이점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충주와 같이 도시화가 진전된 곳에서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다. 예성공원은 충인동시장에 인접하기 때문에, 고객의 관심을 끄는 데에 유리하였을 터이다. 고객이 많아지면 행상과 농민이 더 많이 출시하고

박리다매가 가능하여 가격 조건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가격조건이 좋아지면 고객이 더욱 많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1970·80년대에 충주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상설시장과 점포상업이 발달하여 정기시가 위축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어떻게 도시화의 진전이 정기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까. 충주장이 폐지될 무렵에도 청주장처럼 장날에 거래가 훨씬 번창하였는데, 정기시를 인위적으로 폐지하였던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성공원 주변처럼 버스 교통이 편리하면서 시장이 인접한 중심부에 공터를 가지게 된 점이 정기시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생각된다. 그래도 상설 소매상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정기시가 위축되는 추세였는데, 행상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시장이나 산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농민도 자가의 화물차로 농산물을 다량 실어와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충주시가지 안의 정기시 개설운동을 살펴보자. 1990년대에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출현으로 타격을 받은 충인동시장의 상인은 인접한 예성공원 정기시의 활성화에 타격과 아울러 자극을 받아 1997년말에 충주자유시장변영회를 창립하고 충인동에 5·10일장을 열었다. 현재 노점상은 예성공원 주위에 넘쳐나 충인교를 지나 제1로타리에 이르는 지역까지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 충인동시장의 중심 거리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충인동 정기시의 개설은 예성공원 정기시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충인동에서 정기시가 성립하던 무렵 蓮守洞 주공아파트단지 옆 축협 한아름마트 앞의 공터에 3·8장이 개설되었는데, 현재 시장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충인동시장의 정기시 유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남부시장의 상인이 2000년 4월에 4·9일장을 개설하였으나, 7월 현재 찾아오는 노점상이 열 미만일 정도로 침체한 상태이다. 정기시란 마치 바겐 세일처럼 거래의 집중에 따른 이점을 가지는데, 현 시점에서 충주시가지에 정기시가 분산하여 2일 이상 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천시가지에서는 중앙시장에 활동하던 노점상 등이 1998년경부터 역전 앞에 3·8일장을 열었다. 지금 정기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충주와 음성에서 정기시 부활운동이 활발하였다. 정기시 부활운동은 음성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음성군 대소면 등지의 상인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 후 인구 증가에 힘입어 1983년말 내지 1984년초에 소멸된 대소장을 1993년에 부활시켰다. 장날을 3·8일로 하여 인접한 광혜원장으로부터 상권을 탈취할 포부까지 가졌고 처음에는 장이 잘 섰으나, 물건값이 싸지 않아 점차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침체하였다. 1973년에 폐지된 음성군의 생극장이 1995년에 부활하여 처음에는 번창하였으나, 가격조건이

유리하지 못한 데다가 무극에 가까워 얼마 지나지 않아 침체하였다. 1998년 이래 생극면 소재지에서 할인점이 개설되어 정기시는 더욱 침체하였다.

충주 관내에서는 1980년대에 소멸된 용당장이 1996년에 양성장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1973년에 소멸된 대소원장이 1999년 4월에 대춘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으나, 충주시가지에 인접하여 주민의 호응이 낮아 1년 후에 깨어졌다. 그러자 대춘장의 부활에 참여한 행상 등이 1976년 폐지된 충주의 용원장을 2000년 4월에 신니장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신니장은 대춘장과 달리 충주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면소재지에 할인점이 없어 주민의 호응이 더욱 크다고 한다. 대춘장과 신니장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정기시를 순회하는 행상이 정기시 부활운동을 확산시키는 주체이다.

청원군에서는 내수장이 1979년경에 소멸되었다가 1997년에 부활하였다. 청주시에 통근하는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수요기반을 확충한 것이 정기시의 부활을 후원하였을 것이다. 그밖에도 필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활된 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정기시는 읍소재지에 있다. 畞場은 읍내에 밀집한 주민과 주변 농촌의 주민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읍내 할인점 등 유통설비의 확충,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을 보는 관행의 확산은 읍장의 장래도 어렵게 한다. 서울과 교통이 편리하고 공단이 들어선 음성 관내나 청주시 근교에서는 인구의 증가가 정기시의 존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옥천의 청산장처럼 읍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일정 범위의 주변 농촌을 포섭할 수 있는 정기시는 수명이 길 것이다. 특산물의 출하도 정기시의 존립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지 못한 농촌의 정기시는 머지 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다. 1970년대 이래 교통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반경의 확대는 면소재지 정기시의 위축과 畞場 소매상업의 번창을 낳았는데, 최근 교통이 더욱 발전하자 읍소재지의 정기시가 위축하는 반면 도시화가 진전된 충주시의 정기시가 번창하고 있다. E-mart와 같은 대형 할인점이 진출한 후에도 충주시의 정기시가 번창할지는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 IV. 中心地 階層構造와 都賣商業의 變遷

전경숙 교수는 1940년·1965년·1980년경 충청북도 중심지의 계층구조를 파악한 바 있다.<sup>40)</sup> 필자는 『韓國忠淸北道一斑』을 이용하여 1908년경 계층구조를 추정할 바 있고,

40) 田京淑, 1983. 앞의 논문.

『동국』과 『입원』 단계의 고차중심지를 찾아본 적이 있다.<sup>41)</sup> 그것을 <표 6>에 수록하였다. <표 6>을 참조하면서 중심지 계층구조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6> 중심지 계층구조의 변화

계층	4차 중심지	3차 중심지	2차 중심지
18세기 중엽			충주, 청주
19세기 초			충주, 청주
1908년경		청주	제천,충주,괴산,진천,조치원,보은,옥천,영동
1940년		청주, 충주	제천,음성,증평,영동,단양,진천,괴산,보은
1965년		청주,충주,제천	음성,증평,영동,단양,진천,괴산,보은
1980년경	청주	충주,제천,*영동	단양,음성,금왕,증평,괴산,진천,보은,옥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도·소매의 분화가 진전되지 못하여 계층구조가 덜 뚜렷한 데다가 자료마저 부족하여,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애로가 커진다. 『丙子日記』를 보면, 인조 때에 좌의정을 지낸 南以雄의 부인인 南平曹氏가 병자호란으로 충청도에 피란 생활을 하던 1638년 3월에 반찬 없는 밥을 건디지 못하여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삼베로 싸 조기를 사오게 했던 것으로 보건대, 17세기 전반 충청좌도에서는 고차중심지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동국』 단계에는 계층구조가 형성되었던가. 인접한 정기시의 장날이 대개 다르게 조정된 것으로 보아 장시간 연계(네트워크)는 이루어져 있었다. 1750년경에 집필된 『擇里志』에 의하면, 충주는 竹嶺과 鳥嶺을 통하는 육로와 漢江水運을 연결하는 ‘畿湖往來之衝’으로서 金遷을 통하여 ‘嶺南貨物’과 ‘漢陽魚鹽’을, 牧溪를 통하여 ‘東海魚鮮’과 ‘嶺峽貨物’을 집산하였다. 충주장은 남한강 상류의 상품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에워싼 금천, 嘉興, 목계 및 內倉이 상업적으로 번성하였다. 그런 점에서 충주장은 고차중심지였음이 분명하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충청좌도에서 북동쪽의 7군현은 忠州牧이, 그 남서쪽의 12군현은 淸州牧이 관할하였는데, 청주는 충주에 못지 않은 큰 고을이어서, 청주장도 충주장과 마찬가지로 고차중심지일 가능성이 있다. 충주와 청주의 장날이 5일장의 두 배였던 것은 두 장이 고차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키너는 低次中心地는 상호간에 開市日을 같이 할 수 있지만, 高次中心地와는 개시일

41) 李憲稔, 앞의 논문(1990·1994).

을 달리 한다는 가설을 내세웠고, 이 가설은 이후의 여러 연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sup>42)</sup> 저차중심지에 配給할 물자를 고차중심지에서 조달하고 저차중심지로부터 시장권의 잉여를 모아 일단 고차중심지에 集荷하는 행상을 위해서도 장날은 달라야 했다. 충주의 4·9일장과 청주의 2·7일장은 고차중심지의 기능을 하고, 나머지 장날에는 주변 주민의 일용품 매매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의 鎭管 하에 있는 음성-괴산 이동에서 충주의 4·9일장과 장날이 같은 것은 永春場과 南倉場뿐이었다. 인접한 남창장은 곧 소멸될 운명이었다. 충주의 동쪽으로는 청풍장(1)→제천장(2)→내창장(3)→충주장(4)→단양장(5), 그 서쪽으로는 음성장(2)→괴산장(3)→충주장(4)→무극장(5)이라는 행상의 순회로가 성립할 수 있었다. 충주장은 광역의 장시와 장날을 달리하여 연계를 맺을 수 있던 상업중심지라는 점에서 고차중심지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2차 중심지인지, 3차 중심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청주장은 서로는 燕岐場과 長命場, 북으로는 鎭川場, 동으로는 靑川場과 장날이 같아서 圈內에 포섭된 영역이 좁은 편이었다. 그런 점에서 청주장이 『동국』 단계에 3차 중심지일 수는 없고 2차 중심지일 가능성은 있다. 요컨대 충청좌도에서는 『동국』 단계에 장시의 계층구조가 미약한 형태나마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고 싶다.<sup>43)</sup>

『동국』과 『임원』의 사이에 계층구조의 변동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각 忠州場과 淸州場에 인접하면서 장날이 동일하던 南倉場과 長命場의 소멸은 청주장과 충주장에 포섭된 영역의 확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충주장 주변에서 그것과 장날이 같은 漢川場이 생성하였다.

1909년 편찬된 『韓國忠淸北道一斑』은 장시별로 店商·酒幕·露店·聚集人의 수뿐만 아니라 거래액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에 발간한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는 각 邑場의 장날, 거래액, 집산화물 및 집산지역을 기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1908년경 충북 시장의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9세기 충북의 계층구조에 큰 변동이 있었다. 1901년경에 충주는 “다른 지방보다 장날 수는 많아도 그에 비해 시장이 성하지 않았”지만, 청주는 이미 “충청북도에서의 제일의 貨物集散地”였다.<sup>44)</sup> <표 5>에 의하면, 1908년경 청주장의 거래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

42) 石原潤, 1987. 『定期市の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76.

43) 李榮薰 교수는 18세기 조선 농촌에서는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이나 상인의 분화가 전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韓國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歷史的 特質』韓國開發研究院, 2000. 33). 조선후기 지방에서 도매상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이 계층구조의 형성을 제약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도매기능을 담당한 행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4) 『通商彙纂』 211號, 「韓國京畿江原及忠淸道農商況視察報告書(1902.1.14)」, 125.

였지만, 충주장은 거래규모에서 10위안에 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항 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최영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 嶺南大路의 중심은 충주를 경유하는 길이었지만, 1598년 충청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1601년 경상감영이 상주로부터 대구로 이전된 후에는 대구—추풍령—천안—수원이란 교통로로 점차 이전되었다 한다.<sup>45)</sup> 개항 이후 汽船에 의한 海上運送의 발달이 충주를 경유하여 경기와 영남을 잇는 內陸流通을 위축시킨 반면, 청주장은 竝川↔鎭川↔屯浦↔仁川 및 芙蓉江↔江景↔群山이란 經路를 통하여 주변 지역과 개항장 간의 거래를 중계하면서 성장하였다.<sup>46)</sup> 1905년 조치원-추풍령을 경유하는 경부철도의 개통 및 1908년 충주에 있던 충청도청의 청주로의 이전은 청주장과 충주장에 극적으로 상반된 효과를 낳았다.

철도개통 직후 충주장은 장날이 半減하여 5일장이 되었고 그것에 포섭된 淸風場·水山場·丹陽場·大召院場·龍院場도 장날을 바꾸었다. 그에 따라 청풍장·수산장·단양장은 제천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제천장이 충주장보다 커졌다. 청주장이 성장하면서 경부철도의 개통 이전에 이미 鎭川場과 懷仁場이 청주장과 같은 장날을 변경하여 淸州場에 포섭되었다. 청주장은 경부철도의 鳥致院驛에 直結되면서 集散力을 크게 강화하였다. 청주장에 포섭된 영역은 남으로는 文義·懷仁郡, 북으로는 鎭川·淸安郡이었다. 동·남·서에 있는 장시들은 청주장과 직결되는 巡回路를 가졌지만, 북의 廣惠院場과 石峴場은 진천장을 경유하여 청주장에 포섭될 수 있었다. 1908년경 청주장은 그 거래액, 여기에 출입하는 상인수 및 장날의 공간적 분포로 보건대 3차 중심지였다.

1908년경 "충북 通商의 二大動脈은 京釜鐵道와 漢江이"었는데 "대체로 괴산·음성 동쪽은 한강에, 그 서쪽은 경부철도의 편에 의존하"였다.<sup>47)</sup> 충주장은 여전히 남한강유통권의 중심을 이루는 고차중심지였고, 제천장이 충주 동쪽과 강원도지역의 교환관계를 담당한 고차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 두 고차중심지는 제천장→내창장→충주장→寒泉場이란 巡回路를 통하여 直結되었다. 남한강유통권과 철도유통권의 사이에서는 괴산장이 거래액이 가장 컸고 많은 상인과 농민을 모은 고차중심지였다. 진천장은 청주와 안성이라는 3차 중심지를 연결하면서 2차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조치원은 청주라는 3차 중심지를 철도로 연결시키는 2차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청주의 동남쪽에는 보은·옥천·영동이 거래액이 많고 많은 상인을 모은 고차중심지였다. 영동장은 동으로는 龍山場→黃澗場→菴德場→영동장이란 巡回路를, 서로는 茂朱場→錦山場→陽山場→영동장이란 순회로를 포섭하였다.

45) 崔永俊, 1990. 『嶺南大路』(高大民族文化研究所), p.132-5, 152.

46) 『通商彙纂』 187號, 「韓國京畿忠淸兩道農商況視察復命書(1900.12.22)」, 85.

47) 『一斑』 前篇, 75.

흥미있는 점은 1914년 行政區域의 改編이 2차 중심지의 시장권에 상당히 照應한다는 점이다. 黃澗場은 영동장에, 靑山場은 옥천장에, 懷仁場은 보은장에, 文義場은 청주장에, 延豊場은 괴산장에, 淸風場은 제천장에 포섭되어 있었는데, 황간군은 영동군에, 청산군은 옥천군에, 회인군은 보은군에, 문의군은 청주군에, 연풍군은 괴산군에, 청풍군은 제천군에 통합되었다. 시장권이 농민과 상인의 경제생활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행정권의 개편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sup>48)</sup>

이상에서 충북 시장의 계층구조가 조선시대에 발달하는 현상을 고찰하였는데, 전경숙 교수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에 계층구조의 발달을 지적하였다. 전교수에 의하면, 1940년에 중심시설로서 정기시의 역할이 매우 커서 중심지 시스템은 정기시를 주로 하였고, 청주와 충주는 도매기능을 가진 常設市를 보유하는 3차 중심지였다고 평가하였다. 도매기능을 가진 상설시에 관한 자료적 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청주와 충주에는 도매상업이 발달하고 이들 도매상인은 장날의 거래에 주로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액 20위 이내의 정기시를 표시한 <그림 6>에 의하면, 1908년에는 청주장의 탁월성이 두드러진 반면, 1938년에는 충주장과 영동장의 거래규모가 청주장에 대등하였음이 주목된다. 이 기간에 고차중심지 그룹이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6> 상위 20위 정기시의 거래액

전교수에 의하면, 1965년경 2차 중심지에는 정기시가 계속 중심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3차 중심지인 청주·충주·제천에는 상점가 등 도시시설이 주된 중심시설이 되고 정기시는 고차기능을 빼앗겨 저차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한다. 『忠淸北道統計年報』에 의하면, 1966년 충북에서는 도매시장이 청주시에 1차 있었고, 상설시장은 청주시에 4차, 충주시에 2차, 제천군에 2차 있었다. 상설시장은 시·읍내 주민에 대한 소매기능을 주로 하였다. 당시 도내 도매상점은 440개이고, 청주시에 126개, 충주시에 147개, 제천군에 83개였다. 이들 도매상점이 고차기능의 주된 담당자로 판단되는데, 청주시·충주시·제원군의 도매상점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전교수는 1980년경 청주시가 도매기능을 가지는 상설시와 전문점센터라는 중심상점가를 가진 4차 중심지로 부상하고, 충주시·제천시·영동읍이 상설시, 정기시 및 중심상점가를 가진 3차 중심지였다고 파악하였다. <그

48) 이상은 李憲昶, 1990. 앞의 논문, 3장 3절 참조.

림 6>에 의하면, 1975년 정기시 거래액은 1938년과는 달리 더 이상 중심지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 3차 중심지인 제천시와 충주상의 거래액은 다른 2차 중심지의 거래액과 대등한 것으로 보건대, 제천시와 충주에서 정기시는 최고차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 반면, 저차기능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다.

전교수는 중심지의 계층구조가 1980년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았는데, 필자는 그와는 다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차중심지는 저차중심지의 물화를 수집하고 그에 대하여 도매기능을 통하여 상품을 배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시장 형성의 초기에는 도매와 소매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도·소매기능의 분화가 진전되고 나아가 중앙도매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도·소매기능의 분화가 진전되면 시장의 계층구조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경로가 단축되고 나아가 직거래가 성장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중간 단계의 도매업이 쇠퇴하면, 시장의 계층구조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시장의 계층구조가 형성, 발달하여 조선말 충북의 시장은 미약하나마 3계층구조를 이루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일제시대에 도·소매기능의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3계층구조가 확고해졌다. 1960년대까지도 충북의 시장은 3계층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 단위의 정기시인 저차중심지는 관내 주민에 대한 중심적인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였다. <표 6>에 나타난 2차 중심지는 저차중심지에 대한 도매기능을, 3차 중심지는 2차 중심지에 대한 도매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3차 중심지인 청주에서는 서문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점이 특히 발달하였고 남주동에는 중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었으며, 충주에서는 충인동시장에 도매상점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이래 도로교통의 현저한 발달은 도매기능의 이러한 위계질서를 동요시켰다. 버스 운행이 확대되면서 버스를 이용하여 3차 중심지인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을 출입하는 1차 중심지의 소매상인이 갈수록 늘어났을 것이다. 도매상인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3차 중심지의 도매상인도 화물차를 마련하여 1차 중심지의 소매상인에게 물화를 배급하게 되었다. 나아가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이 버스로 장보러 가는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면 단위까지 있는 정기시인 1차 중심지가 급격히 위축되고 다수가 소멸하였다. 그와 동시에 1970년대 전후에 주로 읍소재지의 정기시인 2차 중심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쇠퇴하고 소매상업은 더욱 번창해져서, 읍장이 2차 중심지로부터 1차 중심지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아마도 1970년 후반과 1980년대 전반에는 충북에서는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이 도매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충북의 시장은 2계층구조로

변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래의 교통발전을 비롯한 경제발전은 상인의 거래 반경과 소비자의 구매 반경을 갈수록 확대시켜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의 도매기능마저 약화시켰다. 상인의 거래 반경이 소비자의 구매 반경보다 먼저 확대하였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와 1988년 중부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국도·지방도·시군도 포장의 확대는 서울과 농촌의 경제적 거리를 현저히 단축하였다. 그 결과 저차중심지의 소매상인으로서 서울의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갈수록 늘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확산 정도는 거래량, 지리적 위치,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매상이 대량 구매를 할 때에는 서울의 도매시장에 가고, 영세한 소매상이 소량 구매를 할 때에는 충북 안의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매방식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필자가 2000년 7월 충주 용원장에서 만난 채소행상은 대량 구매는 서울에서, 소량 구매는 충주에서 한다고 했다. 음성 관내에서 만난 행상은 거의 서울에서 구매한다고 말하였다.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한 음성 관내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서울시장과 거래하는 상인이 많았고,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저차 중심지의 영세한 상인도 화물차로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단양의 소매상인은, 심지어 단양장의 소매상인도 주로 제천의 도매상에 의존하였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교통비와 왕래 시간의 차이가 도매시장의 선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거래처가 다르다. 필자가 단양장에서 만난 어물상과 청과상은 제천의 도매시장에 주로 의존한 반면, 의류상은 서울의 동대문·남대문시장에서 구매하였다.

의류상은 쇼핑차로 저녁에 서울로 출발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아침에 돌아온다. 쇼핑차가 나오기 전에는 버스로 기차역에 가서 기차로 서울에 가고 다시 버스로 도매시장으로 가야 했고, 내려올 때에는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 했으므로, 차라리 충북 안의 도매상인에 사는 것이 편했을 터이다. 교통 발달의 산물인 쇼핑차는 소매상이 서울 도매시장에 왕래하는 편의를 증진하여 충북 안 의류의 중간도매상을 소멸시켰다.

교통의 발달과 도매상간 경쟁의 격화는 도매상인의 소비지 진출을 촉구하였다. 이제 서울상인이 화물차로 물건을 실어 충북 저차중심지의 소매상인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장날에 소비자에게 바로 상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제조업체가 급증하고 그들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조업체도 지방의 도매상인, 나아가 소매상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충주 충인동시장에서 1967년부터 잡화 도매업을 시작한 김광영 씨는 처음에는 서울 방산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수년 지나자 서울의 도매상인이 직접 찾아와 물건을 배급해주고, 공장에서 찾아와 직접 거래하는 길을 열었다 한다. 제조

업체들은 나아가 대리점, 특약점, 직매점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공산물을 직접 배급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농협연쇄점과 슈퍼마켓이, 1990년대에 백화점과 할인점이 확산되었는데, 이들은 슈퍼체인 본부, 연쇄점 본부, 백화점 본부 등으로부터 물자를 배급받았고, 대형 할인점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현대적 유통업체의 성장은 충북 안의 중간 도매상뿐만 아니라 재래의 상설시장과 정기시의 소매상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충북의 소매상인이 서울 등 충북 밖 대도시의 도매상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로가 확대되고 제조업체가 소매상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공산물을 배급하는 경로를 확대하고 농협연쇄점·슈퍼마켓·백화점·할인점이 성장함에 따라,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의 도매기능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충주 충인동시장의 김광영 씨는 번창하던 잡화 도매업이 1980년대에 갈수록 침체하자 주변의 동종 도매업이 폐업·전업을 하는 가운데 1987년 지물의 소매로 전업하고 금광지협사로 상호를 바꾸었다. 잡화 도매업이 먼저 소멸된 것으로 보아 80년대 중반부터 충인동시장은 점차 도매기능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잡화 도매업 대신에 의류 소매점이 들어섰다. 청주에서는 1988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자 남주동시장이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상실하고, 각종 도매업의 중심지였던 서문시장도 도매기능을 점차 상실하였다. 지금 이들 시장은 충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현재에도 도매기능을 보존하고 있는 상설시장은 청주의 육거리시장, 제천의 역전시장 정도라 한다. 이들 시장의 도매업도 소량 구매를 하는 영세 상인을 주된 고객으로 삼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소매상업의 위축도 충북의 도매상업에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성장은 재래시장의 소매상업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 시기에 자가용이 널리 보급되어 소비자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있는 청주와 충주로 가서 물건을 살어오는 데에 별 애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고도성장기의 소득 증가와 교통 발달로 소비자의 구매 환경과 상인의 거래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1970년대 이래 종전의 1차 중심지가 시장기능을 위축하거나 상실하게 되고, 종전의 2차 중심지가 도매기능을 상실하였으며, 1980년대 이래에는 3차 중심지인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의 도매기능도 위축되는 추세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래 상인간·제조업체간 경쟁의 격화가 도매상인이나 제조업체로 하여금 유통경로의 혁신을 촉구하는 가운데, 중간 도매업이 위축, 소멸되어갔다. 요컨대 20세

기 전반까지는 도·소매 기능의 분화가 진전되어왔는데, 1970년대부터는 중간 도매상이 위축, 소멸되는 추세였다.<sup>49)</sup> 그에 대응하여 충북 시장의 계층구조는 아마도 일제시대 후반까지는 확대되는 추세이다가, 1970년대부터는 축소되는 추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필자는 충청북도의 정기시가 변천하는 실태를 자세히 보여주는 데에 주력하였고, 그 변천의 원인에 관해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이미 효율적인 장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시장은 20세기 전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속하였다. 정기시수는 약 2백년간 변하지 않다가,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1924년부터 늘기 시작하고, 1924~1941년간에 그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전시통제기에 정기시수가 급감하였다가 8·15해방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급증하였다. 정기시는 1960년대에 90여 처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1970·8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 정기시의 급증은 인구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1면 1시장 설립운동과 같은 인위적인 정기시 설립운동에 크게 힘입었으며,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립된 정기시가 정리되면서 1970년대 전반에 정기시가 급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농촌인구가 감소한 데다가 1970년대 후반 이래 버스를 이용하는 장을 보는 관행이 확대됨에 따라, 도읍이 아닌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정기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1990년대에 정기시의 감소 추세가 멈추었는데, 그것은 이 시기 충북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충주·음성 지역 등에서의 정기시의 부활에 힘입었다.

20세기는 경제발전이 현저한 시기였다. 그러한 가운데 충북 지방의 유통기구가 급속히 발달하였다. 19세기까지 농촌에는 장시와 포구가 유일한 시장이고 포구나 大場의 객주 외에는 定住商業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20세기 전반에 충북에서도 상설시장이나 시가지에서의 점포상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1960년대까지 진전되었다가 1970년대부터는 농업연쇄점,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등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보급

49) 安城場에는 원래 서울의 도매상과 지방 상인을 연결하는 중간 도매상이 있었으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1970년대 중엽에는 중간 도매상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었고 지방의 상인이나 대량 소비자는 직접 서울에서 구매하고 있었다(金完培, 앞의 논문, 93). 안성은 충북보다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였으므로, 중간 도매상이 더욱 일찍 소멸하였을 것이다.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유통기구가 성장하는 가운데 정기시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으며, 아마도 1970년대부터는 부차적인 유통기구로 전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는 도처에 출현하는 할인점이 저가품을 공급하는 정기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상설화된 유통기구의 발달로 정기시의 비중이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정기시가 4십여 처에서 줄지 않고 도시화가 진전된 충주시까지의 중심부인 예성공원·충인동에서 소생한 정기시가 활성화되고 번창하는 사실로부터 정기시의 가격경쟁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정기시를 순회하는 행상은 점포유지비가 들지 않는 데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돌며 판매하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자가 생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기시가 원래 가진 강점이지만, 근래 행상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시장이나 산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농민도 자가의 화물차로 농산물을 다량 실어와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정기시가 상설화된 유통업체에 대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시를 순회하는 행상이 가격경쟁력에서 대형 할인점보다는 열세였지만, 소형 상점보다는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정기시는 장날에 거래가 집중하므로 바겐 세일처럼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상인의 박리다매가 가능하게 한다. 면소재지에 있는 소규모 정기시는 고객이 적어 상인이 적고 그래서 가격 조건이 불리해져 갈수록 침체하지만, 도시화가 진전된 충주시 예성공원의 정기시는 고객이 많아 행상과 농민이 많이 출시하고 박리다매로 가격 조건이 유리하므로 갈수록 번창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의 장보는 습관, 自家 생산물을 팔러오는 농민을 만나고 많은 인파와 어우러져 장을 보는 즐거움 등이 정기시의 존속을 지원하고 있다.

20세기 교통혁명은 시장구조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1880년대 이래 기선을 이용한 연안해운의 성장, 20세기 전반 철도운송의 발전은 隔地間 시장관련을 심화하였다. 20세기 전반에는 상설점포를 가진 도매상인이 기선과 철도를 이용하여 성장하면서 도·소매기능의 분화가 진전되었다. 19세기 충북의 도매 활동으로는 객주가 도매적 성격의 거래를 주선하는 정도를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화물차·버스·승용차를 이용한 도로 교통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도로 교통의 발전은 상인의 활동 반경을 더욱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부터 소비자의 구매 반경도 확대하였다. 농촌의 소매상인은 아마도 1960년대부터 버스를 이용하여 점차 畝場에 가지 않고 청주·충주·제천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화물차를 마련하고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울의 도매시장에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북의 중간 도매업이 위축, 소멸되어갔다. 농촌의 소비자는

1970년대 후반 이래 점차 면소재지의 장을 보지 않고 버스를 타고 읍소재지의 큰 장을 보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자가용으로 청주·충주·제천·서울 등 대도회지로 쇼핑하러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세한 소매상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도매상업을 위축시켰다. 요컨대 20세기 전반까지는 도·소매 기능의 분화가 진전되어왔는데, 1970년대부터는 중간 도매상업이 위축, 소멸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상인·소비자의 활동양식과 도매기능의 변천은 시장 계층구조의 변동에 직결되어 있다. 18세기 중엽 충북에는 장시의 계층구조가 성립하여 있었으며, 20세기 전반까지는 도·소매 기능의 분화가 진전됨에 수반하여 시장의 계층구조는 발달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도로 교통의 혁명적 발전에 따른 상인·소비자의 활동 반경의 확대에 의하여, 1970년대 이래 종전의 1차 중심지가 시장기능을 위축하거나 상실하게 되고, 종전의 2차 중심지가 도매기능을 상실하였으며, 1980년대 이래에는 3차 중심지인 청주시장·충주시장·제천시장의 도매기능도 위축, 소멸되는 추세였다. 계속 발전하던 충북 시장의 계층구조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는 정기시 외의 유통기구가 현저히 성장하면서 정기시의 위상은 계속 낮아졌고 그 동향은 새로운 유통기구에 점차 더욱 강하게 규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기시의 동향만을 분리, 파악하는 접근법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20세기 정기시를 포함한 충북 시장의 변동에 관한 본고에서의 지적은 잠정적인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며, 별도의 본격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충북의 주요한 시장 발전은 거의가 20세기에, 특히 1960년대 이래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착수할 때, 연구에 소요될 시간을 잘못 예측하여 20세기의 자료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고 현지 답사가 미흡한 가운데 본고를 마감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정기시 변천의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는데, 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발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답사를 철저히 한다면, 20세기 후반의 정기시 변천에 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고의 잘못된 사실 파악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시장의 고도화로 중간도매상이 소멸되면서 계층구조가 축소되었다는 필자의 가설에 대한 활발한 논평을 기대해본다.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韓柱成 교수로부터 해방 후의 자료를 구하는 데에,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의 金鍾赫 군으로부터 정기시의 현 지명을 확인하고 정기시 분포도를 그리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金完培 교수로부터 해방 후 농

촌시장의 변화에 관한 유용한 지식을 얻었다.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가 개최한 2000년 춘계 정기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초고에 대하여 裴永穆 교수 등은 자상하고도 귀중한 논평을 해주셨다. 또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과 상정계에 근무하신 구충회 님과 김석부 님의 친절하 설명, 자료 안내 및 설문조사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2000년 6월 필자의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각 시·군청의 지역경제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000년 7월 27~8일간 음성·충주·제천·단양의 답사에서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第1主題 討論要旨】

배 영 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1. 본 논문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충청북도의 장시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장시의 분포, 생성, 소멸의 실태를 구명하고 장날, 거래액까지 제시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시장발달사 연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2. 이 논문은 충청북도의 장시와 관련되는 자료나 연구를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 연구의 bench-mark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일차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 논문은 장시의 변천을 낳은 요인을 구명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 있지만 이 지역의 장시의 변동의 요인을 시론적이지만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논문의 이차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3. 주지하듯이 장시의 연구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장시의 변동과 관련하여 근대 있어서나 현대에 있어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에 없지만 현대에 가까울수록 다른 조건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교통망과 그 변동, 산업구조의 변동, 정부의 장시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필자는 장시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려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이 연구는 다른 부분의 연구와 함께 결합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시분포와 상권의 변화는 그림 1에서 그림 5까지 표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1908년 장시의 계층구조와 상권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다른 연도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불가능 한 것인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1908년의 경우와 같이 다른 연도에서도 장시의 계층구조와 상권의 변화가 제시될 수 있다면 충청북도의 장시변동을 설명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이 논문에서는 필자는 연구대상을 장시로 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장시의 발달과 근대적 시장의 발달과 더 대체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시장에서 장시의 역할은 근대적 시장이나 상점의 등장과 함께 더 위축될 것이다. 특히 청주, 충주, 영동 등과 같이 근대적 시장이 표 6이나 그림 6의 1908년, 1938년, 1976년 장시의 거래액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